

## 뿌려진 씨앗

대지진으로부터 2년. 신록이 눈부신 계절이 되었는데도, 3·11의 기억은 피해자의 마음깊이 얼어붙은 그대로입니다. 「언제가 되면」가설 주택에서는, 장래에 대한 불안을 말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지원에는 긴급할때 물적 지원이나,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 멘탈 케어 이외에, 확실한 확산에의한 영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쌓아 올린것들을 일순간에 전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실망감을 완전하게 매우는것은 그 사람 자신의 재생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게리구마 부문 (선교)

동북 헬프는 처음부터, 교회 재건을 위하여 모여진 의원금과, 다른 지원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모여진 의원금을 나누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게리구마 부문이라 명칭을 붙인것은, 의원금을 받치신 분들의 마음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지원을 지정한 의원금에는, 교회가 재건되어, 다시금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 되어질것의 기도와 소원이 담겨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와같은 생각은 공유되어 지금까지 교파를 넘어 국내외의 개인및 교회, 그리고 각 단체에서 많은 의원금을 보내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금 위원회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교회가 받은 피해는 광범위하고, 피해 정도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중에 의원금 위원회에서는, 피해가 큰것만이 아니고 교단등의 원조에 의한 복귀가 어려운 교회를 우선적으로 원조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절차는 신청, 조사, 보고가 있어, 그러기위해 지금까지 26 회의 의원금 위원회를 열어 왔습니다. 교회 재건에 필요한것이라 한다면, 동북 헬프의 위로금과 지원금은 정말 조그마한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과 함께 커다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재해 직후에는 재건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재건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때, 이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지진과 쓰나미에의한 피해 교회 원조를 위한 신청은 현재 종료 하였습니다.

### 원발 사고 목회 지원

게리구마 부문의 의원금은, 피해교회 지원 외에 원발피해 교회를 위한 목회 지원과, 교회 네트워크에 의한 민생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발 사고에 의한 피해자 지원은 복잡하여, 현지의 목사님은 지금도 너무나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년동안은 계속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더욱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개념하고 있습니다.

동북 헬프는, 이러한 활동에 조금이라도 힘이되어질까하여, 이제까지의 원발 사고 목회 지원으로써 신청하신 교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복원을 위하여 의원금 신청은 동북 6 현에 한정하였습니다만, 이 원발사고 신청에 대하여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신청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만, 앞으로의 전개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신청이 있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회 네트워크 지원

교회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에서 각각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경제적으로 옆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기독교 연합회에서의 후쿠시마 어린이 프로젝트를 아오모리와 연결하는 것과 교회 네트워크에 의한 가설 주택 지원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하는것이 필요하지만, 동북헬프에서는 벌써 많은 의원금을 지출하고 있고 장기간의 운영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재해 당시에 비해서, 의원금을 보내주시는 손길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피해자와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자합니다.

격감은 하였습디다만, 이 활동을 위해 지금도 격려하며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심에 가슴속 깊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부디,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금 위원회 · 위원장     아끼야마 요시히사